



청소년재단 720명 맹활약
미리 신청한 818명 집 찾아가
올해로 20년째 꾸준한 행사
“아이들 기뻐하는 모습 감동
되레 우리가 선물받은 느낌”

“와 산타 할아버지다!”
“예진이 두진이 착한 일 많이 했나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어두컴컴한 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주택가에 산타가 찾아왔다.
잠옷 차림으로 집 앞 주차장에 나와 산타를 기다리던 예진-두진 남매는 그토록 기다리던 산타가 나타나자 소리를 질렀다.
산타에게 달려와 안긴 예진이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산타가 선물꾸러미를 건네자 집안은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다. 선물을 풀어본 예진이는 “나 너무 행복해!”라며 매트리스 위를 방방 뛰었다.
이날 예진이는 평소 갖고 싶어 했던 티니핑 잠옷 세트와 산리오 캐릭터 인형을 받았다. 두진이는 산타에게 헬로



카봇 장난감과 산리오 캐릭터 인형을 받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던 남매의 어머니 고 모 씨는 “아이들이 동화책에서 보던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신났다”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산타는 예진이와 두진이에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당부한 뒤 집을 빠져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 곳곳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이어졌다.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에 참여한 산타와 요정 자원봉사자 720명은 133개 초로 나

뉘어 서울 시내 수백 가정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아동 818명에게 손수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전했다.
올해로 스무 해를 맞은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은 봉사자들이 산타와 요정으로 변신해 미리 신청받은 아동 가정에 방문하는 행사다.
봉사자들은 활동에 앞서 이달 초 대면 교육과 온라인 ‘산타학교’를 통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하는 방법 등 현장에 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익혔다.
또 보호자를 통해 파악한 아이들의 희망 선물 목록에 맞춰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준비했다.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에 참여한

- 1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24일 열린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 출정식에 모인 자원봉사자들.
- 2 출정식에서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줄 편지를 쓰고 있다.
- 3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들이 산타로 변신한 봉사자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이들 대부분이 크리스마스를 뜻깊게 보내려는 청년이었다.
산타 역할을 맡은 오영석 씨는 “3년 전에도 산타로 (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아이들이 기뻐하던 모습이 생생해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인과 함께 2년 연속 산타로 참가한 김지인 씨는 “선물을 주는 입장인데도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직접 만든 쿠키를 건네던 아이의 미소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몰래 산타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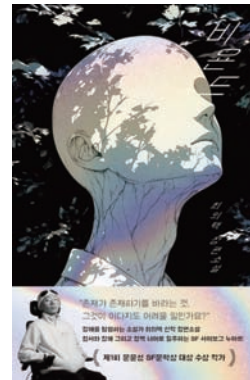
장애와 차별 너머 SF로 그려낸 미래상

최의택 장편소설 ‘비온드’ 출간
장애 딛고 자신만의 작품 만들어

‘선천성 근육위축증’을 딛고 자신만의 과학소설(SF)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최의택 작가의 장편소설 ‘비온드’(사진)가 나왔다.
소설의 무대는 2036년 천안. 이듬해 취약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무장애 여행’을 제공하는 차세대 열차가 개발된다.
개통식 당일 사람들은 부푼 꿈을 안고 열차에 오르는데,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경적과 함께 천안역 역사가 무너지고 열차와 승객들은 잔해에 묻히고 만다.
대참사 후 세월이 흘러 2045년 기억을 잃은 한 남자가 천안에서 눈을 뜬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의 머릿속에선 오로지 천안역으로 향하라는 목소리만 울린다.

기억을 되찾기 위해 천안역으로 향하던 그는 건물 잔해 사이에서 증기를 뿜는 쇠다리 and 날카로운 금속성 손날을 장착한 사이보그들을 만난다.
한편 정부는 폐허가 돼버린 천안을 ‘청소’하고 신천안을 세우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고용한 사이보그 철거용역단체 ‘능구회’, 버려진 땅에서 생존을 위해

온갖 불법 의제를 단 사이보그 시민단체 ‘불구단’ 사이에 사투가 벌어진다.
SF 사이보그 누아르라는 장르적 외피를 입고 있지만 ‘비온드’가 그려내는 모습은 오늘날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범죄자 취급, 불법적인 존재 취급,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경험은 최소한 불구단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또 소설 속 불구단의 대표는 말한다.
“불구단에서 활동하다 보면 정말이지 머리 빼개질 정도로 다양한 장벽을 마주한다. 사소하게는 바퀴로 지나갈 수 없는 길을 만난다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그날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공권력과 극우파 등의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만으로도 불구단은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게 불구단이다”
이 작품은 근육이 약화되는 선천성 근육위축증 탓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휠체어를 타야 했던 작가의 체험이 SF적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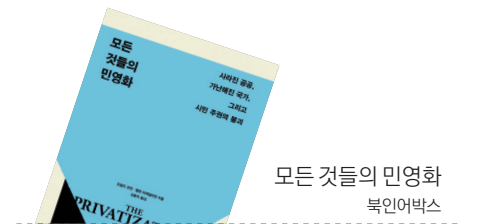


력을 만나 탄생했다.
최의택 작가는 2019년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쩌면’으로 제21회 민들레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저의 아내는 좀비입니다’로 예술세계 소설 부문 신인상을 차지했다.
이후 장편 소설 ‘슈뢰딩거의 아이들’로 2021년 제1회 문운성 SF 문학상과 2022 SF 어워드 장편 부문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SF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상수도·교육·의료까지... 모든 영역이 민간으로

미국에서는 상수도와 교육, 의료, 공공보건, 기상 정보, 교정시설, 도로·통신 인프라 등 공공 부문으로 여겨지던 거의 모든 영역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자들은 이런 변화가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위치에서 행사하던 공적 권리가 약해지고, 의사 결정의 주체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책에 따르면 2015년 캘리포니아주 가문 당시 시민들은 책임감 있게 물 사용을 줄였고, 그 결과 수도 요금 인하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도가 민영화된 애플밸리에서는 물 사용량이 줄자 “판매 단위가 줄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요금이 인상됐다. 민



간 상수도 기업은 물을 더 쓰고 덜 절약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공공재의 공적 통제권을 갖지만, 민영화 되면 통제권을 잃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불과하게 된다고 공공재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공적 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와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

